

## 제자리를 떠난 지역신

### 동경() 두두리()를 중심으로

Local Deity who Left its Place - Examination of Duduri() of the Eastern Capita[] -

---

저자  
(Authors) 윤성재  
Yoon Sung-jae

출처  
(Source) [역사와현실 \(106\)](#), 2017.12, 63-84(22 pages)  
[YKSA WA HYSNLSIL :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 \(106\)](#), 2017.12, 63-84(22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역사연구회](#)  
The Organization Of Korean Historian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86287>

APA Style 윤성재 (2017). 제자리를 떠난 지역신. 역사와현실(106), 63-8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05 12:02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제자리를 떠난 지역신

- 동경(東京) 두두리(豆豆里)를 중심으로

윤 성 재\*

### 머리말

1. 신라의 비형 ; 귀신을 쫓아내는 문신(門神)
2. 고려의 동경(東京) 두두리 ; 제자리를 떠난 지역신  
맺음말

### 머리말

『삼국유사』에 수록된 「도화녀(桃花女)·비형랑(鼻荊郎)」은 도화녀와 그의 아들 비형에 관한 설화이다. 이 설화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것은 비형설화를 도깨비의 본풀이로 이해하고, 거기 등장하는 두두리를 도깨비로 이해하는 설화연구이다. 이 연구들은 도깨비의 어원을 탐색하여 그 원형인 두두리는 돛구바이, 곧 절구공이이며 철기문화와 야장신(冶匠神) 모티브를 간직한 석탈해 신화와 관련시켜 이해하였다. 한편으로 두두리의 다른 이름인 목랑(木郎), 목매(木魅)에 근거하여 왕가수(王家藪)에서 제사를 받는 신이며, 곡식을 다루는 절구, 불과 철을 다루는

\* 광운대학교 인제니움학부대학 외래강사

대표논저 : 2013 「신라 가매(嘉排)와 여성 축제」 『역사와 현실』 87

야장, 저승과 이승을 구별짓는 우주목이라는, 한 존재의 서로 다른 자질을 가진 존재이나 그 본질은 일치한다고 보기도 하였다.<sup>1)</sup> 반면 역사학에서는 정치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비형랑을 진지왕과 도화녀 사이의 아들로 상정하고, 그 정체가 용춘(혹은 용수)과 동일한 것인지에 관심을 두었다. 또 비형랑의 수하인, 길달로 대표되는 무리가 귀교를 건설한 것의 관련하여 건축 장인 집단과의 연계를 설명하기도 하였으며, 두두리 집단이 영묘사(靈妙寺)를 건설한 것과 관련하여 신라 중고기 왕권과 왕위계승, 용춘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sup>2)</sup>

그런데 이 설화의 본질은 비형랑은 귀신을 쫓아내는 신라시대의 문신(門神)으로 좌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려시대까지 그 신앙이 이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만 신라 시대에는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부적의 형태로 사용되었다면 고려시대에는 목매(木魅)라는 신체(神體)에 깃들여 사제(무당)와 신당을 갖추게 되었고, 인간의 길흉화복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변화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러한 신격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점에 이해는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신라의 문신(門神) 비형이 고려 동경(東京)의 두두리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 살피고, 그 변화의 양상과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 국문학계의 두두리 설화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박은용, 1986 「목랑고」 『한국전통문화연구』 2, 효성여자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 강은해, 2003 『한국 난타의 원형, 두두리 도깨비의 세계』, 예림기획 ; 권도경, 2014 「<도화녀(桃花女) 비형랑(鼻荊郎)> 텍스트의 적층구조와 진지왕·도화녀·비형랑 관련 설화의 결합원리」 『한민족어문학』 66

2) 역사학계의 비형랑 설화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김기홍, 1999 「桃花女·鼻荊郎 설화의 역사적 진실」 『한국사론』 41·42 ; 김두진, 1990 「新羅 眞平王代 初期의 政治改革 ; 三國遺事 所載「桃花女·鼻荊郎」條의 分析을 中心으로」 『진단학보』 69 ; 신종원, 2008 「《삼국유사》 <도화녀비형랑>조에 보이는 ‘귀신’ 세력」 『신라사학보』 14

## 1. 신라의 비형랑 ; 귀신을 쫓아내는 문신(門神)

도화녀·비형랑 설화에 나타나는 비형은 그 탄생부터 신이한 존재였다. 설화에 따르면 사랑부(沙梁部)의 과부 도화랑(桃花娘)은 폐위되고 죽은지 2년이나 된 진지왕과 인연을 맺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비형이라고 한다. 비형은 그 사실을 안 진평왕에 의해 궁중에서 성장하였다. 15세가 되었을 때 비형은 집사(執事)가 되었고, 밤마다 귀신의 무리를 거느리고 노는 것[率鬼衆遊]을 알아챈 왕의 명령으로 귀교(鬼橋)를 건설하고, 귀신의 무리 중 길달(吉達)을 추천하여 국정에 참여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길달은 각간 임중(角干 林宗)의 아들이 되어 왕에게 충성하고, 명령을 받고 길달문(吉達門)을 세우는 등 충직한 신하의 역할을 다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길달은 여우[狐]로 변해 도망갔고 귀신을 부려 길달을 잡아 죽여 징치(懲治)한 것이 비형랑이었다. 비형랑은 이후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표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타난 것이 비형랑의 노래를 적은 첩사(帖詞)를 문에 붙여 귀신을 물리치는 것[辟鬼]이었고, 이것은 신라의 풍속이 되었다. 설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와 같은데, 첩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시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기를, “성스런 임금의 혼이 아들을 낳았으니 여기가 비형랑의 집이다. 날고뛰는 잡귀의 무리들은 이곳에 머물지 말라.[聖帝魂生子, 鼻荊郎室亭. 飛馳諸鬼衆, 此處莫留停]”라 하였다. 향속(鄉俗)에는 이 글을 붙여서 귀신을 물리친다.[鄉俗帖此詞以辟鬼]<sup>3)</sup>

이에 따르면 ‘정란황음(政亂荒淫)’하여 즉위한 지 4년 만에 폐위된 진지왕은 성제(聖帝)로 여겨지고 있으며, 비형은 문신(門神)으로 좌정하여 그 능력으로 잡귀의 무리를 물리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3) 『三國遺事』 卷1 紀異1 桃花女 鼻荊郎

어디에서나 문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열려진 개구부(開口部)로서 외부의 물리적 위협에 대한 방어적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잡귀나 병 등과 같은 미신적 위협을 차단시켜주는 심리적 보호물이기도 하다.<sup>4)</sup> 문에 좌정하는 문신은 대문을 지키고 문의 출입을 단속한다. 대개 가신(家神)의 일종으로 오사(五祀) 중 하나로 여겨지지만,<sup>5)</sup> 신라에서 지낸 사성문제(四城門祭)<sup>6)</sup>나 고려나 조선시대 국문영제(國門祭)<sup>7)</sup>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차원의 제사로 지내는 경우도 있다. 이때의 문은 관청의 문, 성문, 궁문 따위로 길달이 만들었다는 흥륜사(興輪寺) 남쪽에 누문(樓門)인 길달문도 같은 성격일 것이다.

문에 문신의 형상이나 주문을 그려 넣는 것을 문배(門排)라고 하는데, 문배를 붙여 벽사(辟邪)하는 풍속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특히 중국에서는 정월 초하루에 신도(神荼), 옥루(郁壘), 중규(鍾葵), 진숙보(秦叔寶), 울지경덕(蔚遲敬德) 등을 그려 문에 붙여 놓으면 액을 물리칠 수 있다는 풍속이 있었는데,<sup>8)</sup> 이것을 세화(歲畫)라고 한다.<sup>9)</sup> 우리나라에서도 정월 초하루에 글

4) 천득엽 외, 2001 「가택신앙을 통한 한국전통주거공간의 의미 해석」 『호남문화연구』 28, 211쪽

5) 오사의 대상은 호(戶)·조(竈)·중류(中霽)·문(門)·행(行)이다. 봄과 초여름과 늦여름과 가을과 겨울에 각각 지게문[戶]과 부엌[竈]과 집 중앙의 토지신[中霽]과 대문[門]과 한길[行]에 제사하는 것이다(『禮記』 「曲禮下」).

6) 『三國史記』 卷32 雜 志1 祭祀 “四城門祭, 一大井門, 二吐山良門, 三習比門, 四王后梯門”

7) 『高麗史』 卷63 志17 禮5 “吉禮小祀 風師雨師雷神靈星 祭國門儀”

8) 『荊楚歲時記』에 따르면 “(정월) 두 신을 그려 문의 양쪽에 붙이는데, 왼쪽은 신도(神荼), 오른쪽은 울루(鬱壘)이니 세속에서는 이를 문신(門神)이라고 부른다.” (『荊楚歲時記』, 정월 ; 2006, 『중국대세시기』 I, 36쪽 재인용) 다른 세시기들도 대동소이하다.

문신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나경수, 2007 「문신기원신화로서 처용설화와 처용가의 기능 확장」 『한국의 가정

이나 그림을 붙여 액이 물러나기를 바라는 세시풍속이 있었다. 성현(成俔)의 글<sup>10)</sup>에 보이는 정월 세시풍속에는 민간에서는 대문과 창문에 처용과 각종 신상(神像), 닭이나 호랑이의 그림을 붙여 액이 물러가기를 기원했다고 한다.

신라의 경우 문배의 사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처용(處容)이다. 처용은 그 형상을 그려[處容之形] 문에 붙이고 사귀(邪鬼)를 쫓아내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2. 그 때 역신(疫神)이 형체를 드러내어 [처용]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제가 공의 아내를 탐내어 지금 그녀를 범했습니다. 공이 이를 보고도 노여움을 나타내지 않으니 감동하여 아름답게 여기는 바입니다. 맹세코 지금 이후로는 공의 형용(形容)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문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

---

신앙』 상, 민속원 ; 전경욱, 2006 「처용무의 성립과 각 지방의 관련 민속연희 및 민속」 『한국민속학』 44 ; 최갑순, 2000 「중국 전통시대의 문신(門神)」 『역사문화연구』 12 ; 안병국, 2010 「中國 門神 受容 樣相 研究」 『동양고전연구』 40 ; 정병모, 2010 「한국 민화의 시작, 처용문배」 『강좌 미술사』 34 ; 최명림, 2008 「문(門)을 둘러싼 의례와 신앙」 『남도민속연구』 16

- 9) 엄밀하게 따지면 세화는 궁궐에서는 ‘설날 아침’이라는 특정한 날에 수성(壽星), 선녀, 직일신장(直日神將)의 그림을 그려 임금에게 드리거나 왕이 이를 신하에게 나눠주거나, 민간에서 대문에 닭이나 호랑이의 그림을 붙여 재액이 물러가기를 비는 그림(전경욱, 2006 「처용무의 성립과 각 지방의 관련 민속연희 및 민속」 『한국민속학』 44, 452~453쪽)이고, 문배는 그림이나 글씨를 붙여 대문으로 재액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꼭 특정한 날짜나 시기에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둘을 크게 구분했던 것 같지는 않다. 문배의 대상인 처용의 화상도 세화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아 그 혼용을 짐작할 수 있다.
- 10) 한 해의 명절에 거행하는 일이 한 가지뿐이 아니나, 설날 그믐날에 … 이른 새벽에는 그림을 대문간과 창문에 붙이는데, 그림에는 처용·각귀·종구(處容·角鬼·鍾馗)·복두관인(僕頭官人)·개주장군(介冑將軍)·경진보부인(擎珍寶婦人)그림·닭그림과 호랑이 그림 따위였다(『慵齋叢話』 卷2).

였다. 이로 인해 나라 사람들[國人]이 처용의 형상을 문에 붙여서 사귀를 물리치고 경사를 맞아들이게 되었다.<sup>11)</sup>

처용설화는 처용이 문신(門神)으로 좌정하면서 처용의 모습을 그려 사귀, 즉 역신(疫神)을 물리치고 경사를 맞이하는[僻邪進慶] 상황을 보여준다. 자신의 아내를 빼앗은 역신을 보고 처용이 “이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물러났다”고 했으나 축귀에 사용된 것은 처용이 부른 노래 가사가 아니라 처용의 형상이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지귀(志鬼)를 들 수 있다. 지귀는 선덕여왕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불귀신이 되어버린 존재인데, 주사(呪詞)를 써서 화재를 막는 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sup>12)</sup>

3. 지귀는 신라 활리역 사람이다. 선덕왕의 아름다움과 수려함을 사모하여, 근심하며 울고 지내다가 물골이 초췌해졌다. 왕이 절에 행차하여 불공을 드리려는데, 듣고서는 그를 불렀다. 지귀는 절에 가 탑 아래에서 가마의 행차를 기다리다가, 그만 잠이 들었다. 왕은 팔찌를 빼서 가슴에 얹어두고 궁으로 돌아갔다. 나중에는 잠이 깨어 지귀는 간절히 변민하더니 이윽고 마음의 불이 일어나 그 탑을 뺨들다가는 불귀신으로 변해버렸다. 왕이 술사에게 명하여 주문[呪詞]을 짓게 하니 이르기를, “지귀는 마음에서 불이 일어/몸을 태우고 화신이 되었네. /푸른 바다 밖 멀리 흘러갔으니, /보지도 말고 친하지도 말지어다.” 하였다. 그때 풍속에 이 글귀를 문간 벽에 붙여서 화재를 막았다.<sup>13)</sup>

11) 『三國遺事』卷2 紀異2 處容郎 望海寺 “時神現形跪於前曰, “吾羨公之妻今犯之矣. 公不見怒, 感而美之. 誓今已後見 畫公之形容, 不入其門矣.” 因此國人門帖處容之形, 以僻邪進慶”

12) 다만 부적의 기능과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비형침사는 귀신불침부(鬼神不侵符)이며, 처용화상은 질병부(疾病符), 지귀주는 방재부(防災符)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신라시대 수도 계림(鷄林)에서 이처럼 똑같은 형태의 설화가 보인다는 것은 도시 기능으로서의 문과 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알려준다.<sup>14)</sup>

그런데 이들 문신은 고려시대 들어 성격이 변화하였다. 이들의 성격변화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문신 신앙이 발달하는 것이 도시라는 지역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신라의 ‘수도’ 계림(鷄林)이 고려시대 일개 지방행정구역인 ‘경주(慶州)’로 전락하면서 더 이상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전에 비해서 도시적 기능이 쇠퇴해 가고 있었다면 문신의 쇠퇴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신들은 시대가 변하면서 모습이 어떻게 변화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귀는 다른 문신보다 이른 시기에 문신에서 탈락한 것으로 여겨지며,<sup>15)</sup> 처용은 고려시대 들어 놀이[戲]로 흡수되어 궁중 연회에서 연

13) 『大東韻府群玉』卷20 心火繞塔 “志鬼, 新羅活里驛人, 慕善德王之美麗, 憂愁涕泣, 形容憔悴. 王幸寺行香, 聞而召之. 志鬼歸寺塔下, 待駕行, 忽然睡酣. 王脫臂環, 置胸還宮. 後乃睡覺, 志鬼悶絕良久, 心火出繞其塔, 卽變爲火鬼. 王命術士作呪詞, 曰, 志鬼心中火, 燒身變火神, 流移滄海外, 不見不相親. 時俗帖此詞於門壁, 以鎮火災”

14) 안병국의 연구에서 “서울에 정교한 문신 신앙이 발달된 것은 ‘서울’이라는 도시적인 경향으로 대문의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본다. 대문이 있어야 문신을 모실 수 있어 농촌이나 어촌, 산촌 등에는 별로 없다. 안팎의 경계가 분명하여야 하고, ‘대문’ 정도의 설비를 갖춘 양반가에서나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는 농·어촌의 몇몇 부유층 양반 집안을 제외하고는 대문의 가치가 그렇게 중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의 양반가는 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다.”(安炳國, 2010, 「中國 門神 受容 樣相 研究」 『동양고전연구』 40, 204-205쪽)는 지적은 여러 가지를 시사해준다.

15) 지귀설화는 현재 조선시대 편찬된 『大東韻府群玉』에만 수록되어 전해진다. 애초에는 신라시대 『殊異傳』에도 실려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처용설화나 비형설화와는 달리 『삼국유사』에는 靈妙寺 화재와 관련하여 언급될 뿐 지귀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는다. 불교적 요소가 적어 수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행되는 처용무[處容戲]로 정착되었다. 처용무가 언제부터 궁중 연희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으나 신라 하대의 연희에서는 금환(金丸), 월전(月顛), 대면(大面), 속독(束毒), 산예(狻猊) 등의 연희가 베풀어졌다는 기록이 있을 뿐 처용무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미루어 신라에서는 아직 놀이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고려시대 들어서 내전(內殿)에서 소연[曲宴]이나 원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자리에서 신하가 처용무를 추거나, 삼원(三元)의 연희에서 왕이 처용 가면을 쓰고 처용무를 추는 사례<sup>16)</sup>가 보인다. 더구나 『고려사』에 보이는 처용의 용례가 모두 ‘처용희’라는 것은 처용의 연희적 성격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고려시대에 처용은 놀이적 성격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7)</sup> 다만 신라시대 계림의 문신이었던 비형은 그나마 신격을 이어가 고려시대에는 동경(東京) 두두리로 변신하여 중앙 정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였다가 소멸하였다.<sup>18)</sup>

---

지귀설화의 원형이 龍樹의 『大智度論』에 실린 「術波伽說話」라는 점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아마도 보다 이른 시기에 탈락했으며 문신이라는 특징도 크게 주목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 16) 『高麗史』 卷23 世家23 高宗 23年 2月 壬寅 ; 世家36 忠惠王(後) 4年 8月 庚子 ; 卷135 列傳48 禰王 11年 6月
- 17) 나경수는 처용설화를 문신기원신화로 보고 있다(나경수, 2007, 「문신기원신화로써 처용설화와 처용가의 기능 확장」 『한국의 가정신앙』 상, 민속원, 76-77쪽). 그러나 문신로서의 기능을 갖는 신격은 처용 이전에 비형이 먼저 나타난다. 다만 처용은 조선까지도 문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비형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다르게 인식될 수는 있을 것이다.
- 18) 이러한 차이는 문신이 출현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문신 형태의 차이일 수도 있으나 신격이 변화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에 따라 명맥을 이어가기도, 신앙 대상에서 탈락하여 소멸되기도 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김기흥은 후삼국시기 체제전환의 대혼란기에 사회적으로 미신이 풍미했고, 처용은 그런 시점에서 역신을 물리치는 존재로 기대되고 강력한 생명력을 얻어 풍속화되는 계기를 맞이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런 점이 7세기 신라 중대의 안정 속에서 민속·풍속으로 널리 퍼지거나 지속되지 못한 비형랑의 경우와 다르

## 2. 고려의 동경(東京) 두두리 ; 제자리를 떠난 지역신

고려시대에 비형은 동경(東京) 혹은 경주(慶州)라는 특정 지역의 신이 아닌, 중앙 유력 정치인이 믿는 신앙의 대상으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경주출신 무인집정자 이의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4. 이의민은 글자를 몰라 오직 무당의 말을 믿었다. 경주에 목매(木魅)가 있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두두을(豆豆乙)이라고 불렀다. 이의민은 집에 당(堂)을 만들고 목매를 가져다가 안치하고, 날마다 제사를 지내면서 복을 빌었다. 어느 날 갑자기 당 안에서 곡소리가 들리니, 이의민이 괴이하게 생각하여 묻자 목매가 말하기를, “내가 오랫동안 너희 집을 지켰는데, 이제 하늘에서 장차 재앙을 내리려고 하니 내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운다.”라고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의민이 폐망하였다.<sup>19)</sup>

이의민과 두두리의 관계가 가장 잘 나타나는 이 자료는 이의민이 글도 모르는 천한 신분이며, 경주의 두두을을 신앙했고, 두두을은 목매의 형태로 당에 안치해서 날마다 제사를 받는 존재였으며, 인간의 길흉을 알려주는 존재임을 설명한다.

이의민은 본래 경주사람으로, 아버지 이선(李善)은 소금과 체(篩)를 팔아 생업으로 삼았고 어머니는 영일현(延日縣) 옥령사(玉靈寺)의 비(婢)로 나타난다. 그는 뛰어난 무력으로 경군(京軍)에 보임되어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

---

다고 보았다. 또 다른 이유로는 비형량은 첩사(帖詞)이기 때문에 노랫말이 어려운 한문 글귀라는 점에서 대중성이 떨어지고 처용의 형상은 시각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는 차이에서 온 결과라고 보기도 한다(金基興, 2001 「신라 處容說話의 역사적 진실」 『역사교육』 80, 129쪽). 어느 쪽이든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 19) 『高麗史』 卷128 列傳41 叛逆 李義旼 “義旼不會文字，專信巫覡。慶州有木魅，土人呼爲豆豆乙。義旼起堂於家，邀置之，日祀祈福。忽一日，堂中有哭聲，義旼怪問之，魅曰，“吾守護汝家久矣，今天將降禍，吾無所依故哭。”未幾敗”

고, 상경한 뒤도 수박(手搏)을 잘하는 것으로 의종의 총애를 얻어 별장까지 승진했으며, 무신란 때 두드러진 활약을 펼쳐 장군까지 승진하였다.<sup>20)</sup> 이 의민의 출세길이 막힌 것은 명종 3년(1173) 김보당(金甫當)의 난이 발발하였고,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의종 시해를 결행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이의민이 의종을 살해한 곳은 계림의 곤원사(坤元寺) 북쪽 연못가[北淵上]이었다. 원래 의종은 폐위 후 거제(巨濟)에 있었는데 8월에 김보당이 난을 일으키면서 의종의 복위를 명분으로 내세웠고, 왕을 모셔다가 계림(雞林)에 살도록 하였다. 그런데 10월에 이의민이 곤원사의 북쪽 연못가에서 의종을 살해한 것이다. 살해당한 의종의 시신은 누구도 거두지 않았고, 심지어 곤원사의 승려는 의종의 시체를 담았던 가마솥을 수거했을 뿐 시신은 며칠 동안이나 연못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sup>21)</sup>

정중부 사후 집권한 경대승은 이의민의 의종 시해의 죄를 강조하며 이의민의 제거를 모색하였고,<sup>22)</sup> 이의민도 경대승을 죽이고자 하였다.<sup>23)</sup> 결국

20) 『高麗史』 卷128 列傳41 叛逆 李義旼

21) 『高麗史』 卷128 列傳41 叛逆 李義旼

그런데 의종 시해 사건이 벌어진 곤원사는 동경 월남리(月南里)에 건설된 신원사(神元寺)의 남쪽 2리에 있으며, 신원사는 비형이 만들었다고 말하는 귀교 바로 옆에 있는 사찰이었다(『新增東國輿地勝覽』 卷21 慶尙道 慶州府 古跡). 죽을 당시 의종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의민이 의종을 시해할 때 분명히 자신이 유리한 지역, 즉 전 왕을 시해하고도 방해받지 않거나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귀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나 사찰은 반(反) 의종세력이며, 반(反) 김보당세력으로 이의민에게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귀교라는 확실한 구조물이 경주 시내에 버티고 있으며 비형의 전설을 수시로 상기시켜주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귀교나 귀교를 건설한 비형을 신앙하는 집단이 이 주변에 거주했을 가능성도 있다.

22) 조정의 신료들이 궁궐로 나아가 하례하니 경대승이 말하기를, “임금을 시해(弑害)한 자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축하가 무슨 소용인가?”라고 하니, 이의민이 이 소식을 듣고 몹시 두려워하였다(『高麗史』 卷100 列傳13 諸臣 慶大升).

이의민은 두렵고 불안하여 병을 핑계로 자신의 고향인 동경으로 낙향하였다가<sup>24)</sup> 경대승이 사망한 3년 후 다시 상경할 수 있었다. 이의민의 낙향은 경대승의 위협이 거셌으며, 이의민은 그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말한다. 사실 천계출신으로 별다른 기반 없이 경주에서 상경한 이의민과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 경진(慶珍)의 아들로 열다섯에 음서로 교위(校尉)에 임명되어 장군에 오른 경대승과는 대등한 정치력을 갖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경대승을 피해 경주로 내려간 이의민은 경대승이 사망한 후 7개월 뒤 상경하여 집정자가 되었다. 이 집권은 명종이 이의민을 개경으로 불러 올린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다.<sup>25)</sup>

5. 왕이 여러 번 이의민을 불렀지만 나오지 않았으며, 경대승이 죽은 뒤에도 오지 않았다. 왕은 이의민이 난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공부상서(工部尙書)를 제수하고 중사(中使)를 보내 설득하니, 그제야 이르렀다. 왕이 편전(便殿)으로 불러 만났다. 왕은 속으로는 이의민이 두렵고 싫었지만, 겉으로는 은혜를 베풀고 위로하니, 온 나라 사람들이 왕의 나약하고 겁 많음을 한탄하였다. 조금 뒤 수사공 좌복야(守司空 左僕射)가 되었다.<sup>26)</sup>

- 23) 처음 경대승이 허승을 죽일 때에 이의민은 병마사(兵馬使)로 북쪽 변경에 출진하였다. 어떤 사람이 잘못 전하기를, “나라에서 경대승을 죽였다.”라고 하였다. 이의민은 이를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경대승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는데, 누가 모의를 하였을까? 나보다 먼저 손을 썼구나.”라고 하였다(『高麗史』 卷128 列傳41 叛逆 李義旼).
- 24) 이의민이 돌아와서 두렵고 불안하여 병을 핑계로 고향으로 내려갔다(『高麗史』 卷128 列傳41 叛逆 李義旼).
- 25) 명종과 이의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정신의 견해를 참고하였다. 이정신은 명종이 이의민이 자신을 의종처럼 죽일 수 있다는 공포감과 비교적 젊은 무신을 포섭하여 자신의 세력 강화를 추진하려 했던 동기에서 나온 행동으로 보았다(이정신, 2006 「고려시대 명종 연구」 『한국인물사연구』 6, 162-168쪽).
- 26) 『高麗史』 卷128 列傳41 叛逆 李義旼

명종이 이의민의 상경을 여러 차례 종용한 것은 이의민이 경주에서 난을 일으킬까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이때 이미 이의민은 경주에서 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세력기반을 다져놓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주에서의 세력기반은 자신의 출생지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기도 했을 것이고, 아버지 이선이 상업을 통해 구축해놓은 기반을 계승했을 가능성도 있다. 의종을 살해한 지역이 경주라는 것도, 경주출신 조위총이 일으킨 난을 진압한 것도 출신지역에 배경을 구축했기 때문에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 배경이 된 것은 자신의 족인(族人)이나 당여(黨與), ‘지역신앙 공동체’인 일부 경주 세력이었을 것이다.<sup>27)</sup>

그런데 이의민이 신앙하는 대상은 ‘경주의 두두을’이라는 존재이다. 이 경주 두두을의 정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자료에 흠어져서 전한다.

- ① 경주에 목매(木魅)가 있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두두을(豆豆乙)이라고 불렀다.[慶州有木魅, 土人呼爲豆豆乙]<sup>28)</sup>
- ② 목랑(木郎)은 곧 목매(木魅)이다.[木郎卽木魅]<sup>29)</sup>
- ③ 왕가수(王家藪) [고을 사람들이 목랑(木郎)을 제사지내는 곳이다. 목랑은 속칭 두두리(頭頭里)라고 한다.]<sup>30)</sup>

27) 이상 이의민정권의 성립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였다.

- 金塘澤, 1979 「李義叟 政權의 性格」 『역사학보』 83 ; 김당택, 1997 「李義叟의 慶州勢力과 新羅復興運動」 『경주사학』 16 ; 신수정, 2004 「李義叟의 出世 배경과 그 과정」 『사학연구』 74 ; 이정신, 2006 「고려시대 명종 연구」 『한국인물사연구』 6 ; 채웅석, 1995 「명종대 권력구조와 정치운영」 『역사와 현실』 17 ; 박종기, 1990 「12, 13세기 農民抗爭의 原因에 대한 考察」 『동방학지』 69 ; 이정신, 1991 『高麗 武臣政權期 農民·賤民抗爭 研究』, 高大民族文化研究所 出版部
- 28) 『高麗史』 卷128 列傳41 叛逆 李義叟
- 29) 『高麗史』 卷54 志8 五行2 金 高宗 18年 10月 乙丑
- 3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1 慶尙道 慶州府 古跡 王家藪

여러 기록을 종합해보면, 목랑(木郎)은 곧 목매(木魅)이다. 목랑은 곧 두두을(豆豆乙)이라 했고, 목매는 두두리(頭頭里)이니 목랑 = 목매 = 두두을 = 두두리라는 도식이 성립한다. 그러나 정작 목매나 두두리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지는 않았다. 두두리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은 귀교(鬼橋)를 설명하는데 등장한다.

① 귀교(鬼橋) [신원사(神元寺) 옆에 있다. ○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이르기를, 진지왕(眞智王)이 사량부(沙梁部)의 도화랑(桃花娘)이 ... 경주의 풍속에 지금도 이 가사를 문에 붙여서 귀신을 쫓는다. 이것이 동경 두두리(豆豆里)의 시초이다 [此東京豆豆里之始].<sup>31)</sup>

①를 보면 조선시대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서 귀교를 설명하는데 『삼국유사』의 「도화녀·비형랑」조를 전재(轉載)하고 이것이 동경 두두리의 시초라고 덧붙여놓았다. 이 자료들을 단순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 명칭     |        |        |                    | 전거             |
|--------|--------|--------|--------------------|----------------|
| 비형(鼻荊) |        |        |                    | 『삼국유사』 도화녀 비형랑 |
|        | 목랑(木郎) | 목매(木魅) |                    | 『고려사』 오행지      |
|        | 목랑(木郎) |        | 두두리(頭頭里)           | 『신증동국여지승람』 양기수 |
|        |        | 목매(木魅) | 두두을(豆豆乙)           | 『고려사』 이의민 열전   |
| 비형(鼻荊) |        |        | 동경(東京)<br>두두리(豆豆里) | 『신증동국여지승람』 귀교  |

결국 동경 두두리는 귀교를 건설한 비형과 동일한 존재이며, 이를 나무로 만들어 신앙체로 삼은 목랑 혹은 목매이며, 두두리로서, 이것이 ‘동경’을 대표하는 지역신으로 신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2)</sup>

3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1 慶尙道 慶州府 古跡 鬼橋

32) 동경(東京)은 고려시대 경주 지역을 가리키는 대표적 명칭이다. 고려시대의 경주

이의민이 동경출신으로 그 지역신인 두두리를 신앙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런데 두두리를 ‘서울’인 개경으로 모셔와 신앙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는 않다. 이의민이 권력을 쥐기 이전에 경대승의 군사적 위협을 피해 고향인 동경으로 도망갔다가 군사 활동을 주로 하면서 전국을 떠돌았던 것을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집정자가 된 이후가 아닐까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주지역의 신앙 대상인 두두리가 이의민을 따라 서울로 올라오면서 형태가 바뀐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신라시대 문신(門神)으로 좌정하던 ‘계림’의 지역신이 상경해서는 나무신상의 형태로 변화하며 그 성격도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sup>33)</sup> 종이에 쓰거나 그린 문배보다는 나무로 만든

는 여러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승격과 강등을 거듭하며 명칭도 수차례 바뀌었다. 고려 태조는 신라의 935년 멸망한 신라의 수도를 지방도시의 하나로 격하시키면서 경주(慶州)라는 이름을 내렸다. 경주는 987년(성종6)에 ‘동쪽의 서울’이라는 뜻의 동경(東京)으로 높아졌으나, 1012년(현종3)에 다시 ‘경주’로 낮춰졌다가, 1030년(현종21) ‘동경’이라는 이름을 다시 찾았다. 그러다가 무신정권기에는 이곳에서 신라의 부흥을 내세운 반란이 일어나자 1204년 다시 경주로 강등되었고, 1219년에 동경이라는 호칭을 회복하였다. 1308년 계림부를 거쳐 1431년(태종13) 경주부로 확정되었다(국립경주박물관, 2013 『조선시대의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결국 동경은 고려시대 경주 지역을 부르는 호칭이지만, 고려의 지방 단위를 나타내는 주(州)를 사용한 경주(慶州)나, 이미 망해버린 신라를 지칭하는 계림(鷄林)이라는 호칭과는 달리, 고려시대 지방을 부르는 명칭 중 가장 격이 높은 ‘경(京)’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특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동경 두두리라는 표현에는 고려의 삼경(三京) 중 하나인 동경을 지칭하는 우월함과, 자기 지역을 관칭(冠稱)하는 지역신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33) 나무형상으로 만든 신앙대상물은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고구려에서 10월에 국중대회(國中大會)를 열고 수신(隧神, 祿神)을 제사지내며, 목수(木隧, 木祿)를 신좌(神座)에 모신다(『三國志』魏書30 東夷傳 高句麗)는 기록이나 경북 안동 수곡리 국신당(國神堂)에 모셔진 고려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목신상 등의 사례가 그것이다. 왕가수(王家藪)에서 목랑을 제사지냈다는 사실(『新增東國輿地勝覽』卷21

목신이 좀 더 정성을 들여 만들어진 것이며, 좀 더 오래 신앙되는 것이라고 봐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두두리는 이제 집 안에 신당(神堂)을 차려놓고 신상(神象)을 만들어 받들고 믿으며 무격(巫覡)이 공수를 내리는 가신(家神)의 형태를 띠는 것이다. ‘서울’로 이동한 두두리는 언제나 쉽게 그리거나 써서 붙이고, 쉽게 폐기할 수 있는 일개 문신(門神)에서 신체를 가지고 당에 안치되며 전담 사제를 거느리는 존재로 승격한 것이다. 이러한 승격은 권력자와의 결탁으로 이루어졌다. 무신집권기 대표적 권력자인 이의민은 친출이라는 신분적 결합을 매우기 위해 경주의 ‘지역신’인 두두리를 서울로 끌고 올라왔고,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경주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었던, 정신적 구심점이 되었을 것이다.<sup>34)</sup> 다만 이러한 신체의 변화와 지역의 이동은 이의민이 적극적으로 행동한 결과였으나 경주 지역민의 호응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음은 당연한 사실일 것이다.<sup>35)</sup>

원래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은 어느 시대에도 존재하였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경주의 두두리뿐만 아니라 영해(寧海)의 팔령신(八鈴神), 울산(蔚山)의 계변신(戒邊神), 삼척(三陟)의 오금잠(烏金簪), 나주(羅州)의 금성산신(錦城山神) 등과 같은 지역신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지역신은 지역민을 결속하고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확인하여 내부의 통합과 결

---

慶尙道 慶州府 古跡 王家藪)도 신체가 침사에서 목랑으로 변한 고려시대의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4) 경주 지역민과 이의민의 유대감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였다.

강은해, 2011 「고려무신 이의민의 역사와 베트남 왕손의 전설」 『동북아 문화연구』 29 ; 이정신, 2008 「고려시대 경주민의 항쟁과 제사」 『신라문화』 32

35) 그런데 두두리 신앙은 개경 지역에서 확산되지 못하고 이의민의 몰락과 함께 자취를 감춰 버린다. 아마도 개경의 지역신이 이미 확고한 상황에서 권력자의 뒷배 없이 다른 지역의 신이 자리 잡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 또한 경주 지역신을 상경시킨 주체가 ‘미천한’ 이의민 이었다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속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중앙 정치기반이 전무한 이의민은 지역 신앙을 중앙으로 끌어올리면서 신앙을 중심으로 몽친 지역 사회를 중앙에 이식하여 자신의 세력기반으로 삼았고, 세력을 강화해 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의민 몰락 후 두두리 신앙은 서울에서 다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비록 이의민과 그의 아들인 이지영(李至榮)과 이지광(李至光)은 모두 최충헌에게 제거되었지만<sup>36)</sup> 나머지 당여는 경주지역에서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sup>37)</sup> 비록 권력의 중심점은 사라졌으나 당여가 남아있었고 어떤 계기를 통해 중앙정치무대로 다시 등장하려고 노력할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한 당여들이 정계진출을 다시 시도한 것은 몽골침입기의 일이었다.

6. <고종> 18년(1231) 10월 을축 동경(東京)에서 급히 아뢰기를, “목랑(木郎)이 나타나 말하기를, ‘내가 이미 적의 군영에 당도했는데, 원수(元帥)는 모모라는 사람이다. 우리를 5명이 <적과> 싸우고자 하여 10월 18일로 기약하였다. 만약 무기(兵仗)와 안장을 갖춘 말(鞍馬)을 보내준다면 우리들은 마땅히 승전보를 보낼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어 시를 지어 최우(崔瑀)에게 보냈는데, “수명의 길고 짧음, 재난과 상서로움은 일정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여기에 살면서도 알지 못하네. 재앙을 없애고 복을 부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 천상(天上)의 사람 중에 나를 빼면 누가 하리오.”라고 하였다. 최우가 이를 그대로 믿고 사비를 내어 말다래와 안장을 갖춘 말을 그려서 내시(內侍) 김지석(金之蘆)에게 주어 보냈으나, 그 후에 아무런 징험이 없었다. 목랑은 곧 나무 귀신[木魅]이다.<sup>38)</sup>

36) 『高麗史』 卷129 列傳42 叛逆 崔忠獻

37) 최충헌은 서울에서 이의민을 제거한 직후 바로 군대를 경주에 보내 이의민의 죽음을 살해한 것(『高麗史』 卷128 列傳41 叛逆 李義旼)이나 이의민이 제거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지방관이 이의민 세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高麗史』 卷21 世家21 神宗 3年 8月, 12月)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죽인세력 외에 확실한 근거는 없으나, 경주에는 이의민의 경제적 기반으로 상당한 토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김당택, 1997 앞의 논문, 34쪽 주) 75).

고종 18년(1231) 10월 동경(東京)을 침략한 몽골장수 살리타를 제압하기 위해 당시 집정자인 최우는 동경의 목랑, 즉 동경 두두리에게 기꺼이 무기와 말을 제공하였다. 자신의 아버지 최충현이 숙청한 지역에게 최우(崔瑀)가 다시 손을 내민 것이었으나 두두리는 아무런 징협이 없었다. 이제 두두리는 신력(神力)을 발휘하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되었고, 두두리 신앙을 중심으로 뭉친 지역 사회는 중앙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경주는 중앙과의 정치적 교섭에 실패한 것이 명확해졌고, 신력을 잃은 신은 경주에서도 다시 자리 잡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신으로 삼별초를 진압하는데 큰 도움을 준 나주의 금성산신(錦城山神)이 정녕공(定寧公)의 봉작을 받은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7. 나주 사람이 일컫기를, “금성산신(錦城山神)이 무당에 내려 말하기를, ‘진도(珍島)와 탐라(耽羅)의 정벌은 내가 실제로 힘을 사용하였는데, 장군과 군사들은 상을 주면서 나에게는 아무 것도 주지 않으니 어떻게 된 일인가? 반드시 나를 정녕공(定寧公)으로 봉하시오.’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정가신이 그 말에 미혹되어 왕에게 정녕공으로 봉하자고 아뢰고, 또 그 읍록(邑祿)으로 쌀 5석을 거두어 그 <산신의> 사당에 해마다 돌아가게 하였다.<sup>39)</sup>

산악신앙은 그 산악이 소재하는 지역의 토착세력과 깊이 관련된다.<sup>40)</sup> 금성산신에 포상을 제안한 정가신은 나주의 토착세력이었다. 삼별초가 진도와 탐라를 거점으로 삼아 세력을 확장할 때에 정지여(鄭之呂) 등이 금성산(錦城山)으로 입보(入保)하여 7일간이나 성을 지켰고<sup>41)</sup> 결과적으로 삼별

38) 『高麗史』 卷54 志8 五行2 金 高宗 18年 10月 乙丑

39) 『高麗史』 卷105 列傳18 諸臣 鄭可臣

40) 변동명, 2001 「고려시기의 나주 금성산 신앙」 『湖南史學』 16 ; 김갑동, 2017 『고려의 토속신앙』, 혜안

초 세력을 꺾는데 나주세력이 큰 역할을 하였다. 국가는 그 지역의 신앙대상인 산신에게 봉작을 베푸는 것으로 그 지역을 포상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공로를 세운 나주의 지역신과 공로를 세우려 했으나 실패한 동경의 지역신의 차이는 무엇일까? 나주의 지역신은 지역을 수호하는 역할로, 자기의 위치에서 적을 방어해 냈으며 포상도 나주 지역민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한 정가신이라는 인물을 매개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동경의 지역신은 지역을 버리고 서울로 상경하여, 권력층과 연계하여 중앙 정계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점이 차이가 아닐까 한다. 그 결과 금성산신은 조선 중기까지 국가 제사의 대상<sup>42)</sup>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나, 동경 두두리는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다시는 경주에서도, 서울에서도 신앙의 대상으로 자리 잡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 맺음말

『삼국유사』에 수록된 「도화녀·비형랑」 설화는 사랑부(沙梁部)의 도화랑(桃花娘)이 진지왕과 인연을 맺어 비형랑을 낳고, 비형랑이 귀신을 쫓는 문신(門神)으로 좌정하기까지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귀교(鬼橋)를 설명하면서 같은 내용을 수록하면서 “이것이 동경 두두리(豆豆里)의 시초이다.”라고 하였다. 같은 책의 왕가수(王家藪) 부분에서도 “고을 사람들이 목랑(木郎)을 제사지내는 곳이다. 목랑은 속칭 두두리(頭頭里)라고 한다. 비형(鼻荊)이 있는 이후로 세속에서는 두두리를 섬기기를 매우 성대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보면 두두리는 목랑(木郎)이며, 비형랑 등장 이후 경주지역에서 두두리를 섬기는 것이 활발하였다는 점을 알

41) 『高麗史』 卷103 列傳16 諸臣 金應德

42) 『중종실록』 卷31 중종 13년 무인(1518) 1월 18일(무오)

수 있다.

그런데 신라시대에 비형랑이 단지 문신으로 좌정하여 귀신을 쫓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명칭도 특정되지 않았던 반면, 고려시대에는 목랑의 형태로 변화했고 두두리라는 특수한 명칭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목랑 형태의 두두리가 나타나는 것은 고려 무신집권기 이의민의 사례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이 때 보이는 목랑은 경주 출신 이의민이 서울로 올라와 권력을 잡았을 때 토착세력의 신앙대상인 경주의 두두리를 끌고 올라와 집에 봉안하고 섬겼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두두리는 권력자의 신앙대상으로 각종 정치적 사건에서 위력을 발휘하였으나, 권력자의 몰락과 함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신라시대 용의 아들로 문신(門神)이 되었다가 궁중 연회로 흡수되는 처용이나, 지역 신앙의 대상으로 조선 후기까지 국가 제사를 받는 나주신사의 산신과는 다른 형태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동경의 토착신인 두두리가 권력자의 권력에 기대어 상경을 시도했다가 좌절되는 형태이며, 지역을 떠난 지역신이 신격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투고일자 : 2017. 07. 21. 심사일자 : 2017. 08. 05. 게재확정일자 : 2017. 08. 21.

주 제 어 : 비형랑, 두두리, 목랑, 목매, 지역공동체, 경주, 동경

Key words : Bihyeong'rang, Duduri, Mok'mae, local community, Gyeongju, the Eastern "Dong'gyeong" Caoital, Local Deity

##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강은혜, 2003 『한국난타의 원형 두두리 도깨비의 세계』, 예림기획

\_\_\_\_\_, 2014 『동아시아 설화문학 연구』, 태양

김영자, 2007 『한국 부적의 역사와 기능』,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姜恩海, 1989 「豆豆里(木郎) 再考 ; 도깨비의 명칭 分化和 관련하여」 『韓國學論集』 16

강은혜, 2003 「도깨비의 정체(正體)」 『한국학논집』 30

권도경, 2014 「<도화녀(桃花女) 비형랑(鼻荊郎)>에 나타난 도산도목(桃山桃木)·목랑두들(木郎豆豆里) 신화 수용배경과 진지왕 왕권신화 구조」 『구비문학연구』 38

김기홍, 1999 「桃花女·鼻荊郎 설화의 역사적 진실」 『한국사론』 41·42

김당택, 1990 「李義旼의 慶州勢力과 新羅復興運動」 『경주사학』 16

김두진, 1990 「新羅 眞平王代 初期의 政治改革 ; 三國遺事 所載「桃花女·鼻荊郎」條의 分析을 中心으로」 『진단학보』 69

김영수, 2007 「呪詞에 나타난 時間觀 考察 -鼻荊郎詞·志鬼詞·處容歌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16

金宗大, 1987 「符籍의 機能論 序說」 『韓國民俗學』 20

김학성, 1995 「<處容歌>와 관련설화의 생성기반과 의미」 『대동문화연구』 30

朴恩用, 1986 「木郎攷」 『韓國傳統文化研究』 2

서대석, 1975 「처용가의 무속적 고찰」 『한국학논집』 2

신종원, 2008 「《삼국유사》 <도화녀비형랑>조에 보이는 ‘귀신’ 세력」 『신라사학보』 14

염기영, 2013 「『삼국유사(三國遺事)』 <도화녀(桃花女) 비형랑(鼻荊郎)>의 신화적 특징과 그 의미」 『한국문화연구』 25

이완형, 1995 「<桃花女 鼻荊郎> 條의 祭儀劇의 性格 試考」 『한국문학논총』 16

이용범, 1969 「處容說話의 一考察 : 唐代 이슬람商人과 新羅」 『진단학보』 32

이정신, 2008 「고려시대 경주민의 항쟁과 제사」 『신라문화』 32

임동권, 1971 「도깨비고」 『한국민속학논고』, 집문당

&lt;Abstract&gt;

**Local Deity who Left its Place**

- Examination of Duduri(豆豆里) of the Eastern Capital[東京] -

Yoon Sung-jae

The Dohwa-nyeo & Bihyeongrang tale from *Samguk Yusa* tells the story of a female named Dohwa-rang(桃花娘) who was from the Sa'ryang-bu(沙梁部) area and had a relationship with the Shilla king Jinji-wang, and also the story of a boy named Bihyeongrang, who was born from Dohwa-rang and the Jinji-wang couple and later became a Gate Guardian(門神) who was revered as a deity which could repel malicious spirits. On the other hand,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in its own introduction to the so-called "Gwigyo(鬼橋, the Ghost Bridge)," elaborated that "this was where Duduri(豆豆里) of Donggyeong(東京, Eastern Capital) originated." The 'Wanggasu(王家藪)' section of the same book also clarified that "this was the place where county residents held services for a Mokrang(木郎), which was also called as Duduri(頭頭里) in folklore. Since the time of Bihyeong(鼻荊), people have most actively revered it." We can see that Duduri was indeed a Mokrang(木郎) figure, and was revered quite strongly in the Gyeongju area since the days of Bihyeongrang.

In the Shilla period, Bihyeongrang was only sung(帖詞) as the Gate Guardian and believed to be repelling vicious ghosts without ever being provided with a stylized name of its own. Then coming into the Goryeo period, its body(神體) was established in the form of a 'Mokrang,' while it was also provided with a name called 'Duduri.' The first ever appearance of this Mokrang-shaped Duduri figure in historical records was during the Military Regime period and particularly the time when Yi Eui-min was in power. When Yi Eui-min, who was from the Gyeongju area, came to the Gaegyeong capital, he brought with him a Duduri figure which was also widely revered by the Gyeongju locals, placed it in his own house, and paid respect to him everyday. This Duduri figure surfaced prominently in several political incidents as objects revered by politicians, but its stature apparently faded away over time, with such politicians' eventual downfall.

This kind of evolution is a different one from those of other deities, such as Cheoyong, a Shilla-period figure who was originally the son of a dragon but later became a Gate Guardian himself and was eventually incorporated into the

palace banquet culture, or the Mountain god of the Naju area's Shinsa Shrine, which received dynastic memorial services till the end of the Joseon period. Compared to them, Duduri, the indigenous local deity of the Gyeongju area, seems to have attempted to transfer itself to the central capital via a powerful politician on its way there, but ultimately failed and began to lose its identity as a deity itself because of its attempt to leave its very roots in the first place.